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생로병사는

다리가 없는 강과 같은 것

당신은 건너갈 배를 준비했는가?

'생로병사'는 인간의 네 가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탄생은 인생이 시작 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곧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건강은 악화되고 감각은 무뎠어져 치아는 빠지게 됩니다. 그 리고 흰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지요. 기억력이 감퇴되어 성미를 고약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불평 불만 많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욕망 또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나 일은 어 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찌될지 걱정이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노쇠하고 아프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통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큰 고난은 요동치는 격동의 강과 같고, 우리는 반드시 이 강 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너갈 배를 준비해 건너편 기슭에 다 다를 수 있는 배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자 역량 모으는 거리모금 펼쳐진다

날마다좋은날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우리사회의 기부문 화 확산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 동안 대대적인 거리모금 캠페인에 나선다.

중앙신도회 사업단 날마다좋은날(이사 장 이기홍)은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공헌기금 마련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사업설 명회'를 열고 모금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날마다 좋은 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거리모금 캠페인은 기독교계의 구세군과 같이 불교계 의 대국민 기부문화의 확산과 사회공헌을 위해 진행된다. 행복바라미는 '행복'과 '바라다'의 합성어로 연꽃이 삼보륜을 품 은 심볼로 제작됐다.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4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 알림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시청과 백화점, 역사, 터미널 등지에서 카드 단말기가 내장된 138개소 모금함이 설

치된다.

알림식에는 연꽃을 상징화 한 조형물 제 막식을 시작으로 축제마당이 펼쳐진다. 실 천의 시작, 나눔의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 되는 축제마당에서는 김성주 아나운서 등 전문진행자들의 사회하에 특집방송이 진 행된다. 또 K-POP콘서트와 열린음악회도 이어진다. KBS는 생방송으로 이를 방영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앞서 손연재·이상화·양학선 선수 등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등이 참여하 는 캠페인 로고송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되 며, 캠페인 기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아시스에서는 이들 홍보대사를 중심으 로 행복과 나눔에 대한 프로그램이 3회, ARS스팟 광고가 130회 나갈 예정이다.

전국 모금현장에서는 행복과 나눔을 매 개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에서는 행사기간 동 안 점심에는 연화다실 및 차나누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 BBS특별공개방송과 함



전국 138개소 모금함 설치

4월 28일~ 5월 12일 진행

모금 시작일엔 K-POP 콘서트도

손연재 등 홍보대사로 참가

모금액은 종단 지정기관 전달

개 전국나눔노래자랑(가칭), 청소년을 위 한 합창콘서트, 30일간의 승무, 해민 스님 의 힐링콘서트도 행사기간동안 진행된다.

특히 연등축제가 진행되는 5월 11일에는 집중적인 캠페인이 펼쳐진다. 제등행렬 에 맞춰 모금이 진행되며 12일에는 이음식

이 개최된다. 불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행복바라미 서 포터즈가 1008명 규모로 모집된다. 이들은 발대식과 함께 5개월 간 SNS홍보 등에 나 선다. 모금 현황은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모금현장도 웹캠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 로 볼 수 있다.

날마다 좋은날은 모금 목표액은 15억원 으로 50억 원 이상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행정안전부 지정 복지기 관 및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정 기관 등 260곳에 전달돼 무의탁노인 및 빈곤노인 과 소년소녀가장, 무의탁청소년, 극빈 및 저소득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에 사용 된다.

이기홍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사회공 동선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연등회 기간에 맞춰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 모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불 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나눔 의 문화가 자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1절 기고 '불교가 동아시아 긴장의 해법'

1면에서 계속

'일본국 불교' 과오 되풀이 절대 안돼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도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불교적 시각 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케시마(竹島)= 독도(獨島) 문제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불 교교류에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장이 더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에는 불 교라고 하는 공통의 종교가 있는 것은 다 행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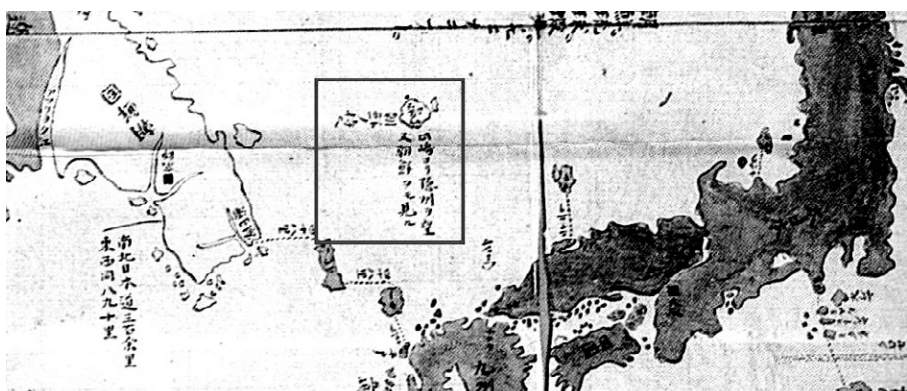
불교는 中道가 원칙

불교는 '중도'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일본의 신흥불교청년동맹을 주도했던 세노오 기로(妹尾 義郎)(1889~ 1961)는, '중도'를 "도(道)에 들어 맞는다" 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불교적인 것을 '중도'라고 진술했다. 필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 를 그레이존(gray zone:중립지대)으로 둔 다는 것도 잘못된 '중도'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지금 일본에서는 영토문제로 한창 시끄러운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 불교계의 그 진의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삼국통람도설> 영인본 일부. 이 지도에는 독도를 '조선의 것(朝鮮ノ持)'이라고 적고 있다. (□부분 참조) 사진 자료=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제공

결론으로서, 다케시마(竹島)=독도(獨 島) 문제를 계기로, 불교는 국가권력으로 부터 완전 독립해야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 만 한다.

불교는 민족이나 영토를 넘은 제3의 지 점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지점을 놓친 것이 식민지 조선시대이며 전쟁에 가담한 일본 불교의 과거 흔적이다. 필자는 이것 을 굳이 '일본국 불교'라고 부른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 이다.

국가와 완전히 별도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불교인은 부처님이 꿈에 그린 '공존 하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모두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결론을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 이 말하고 싶다. "불 교는 로맨틱 종교이 다"라고...



이치노헤 쇼고 (일본 운주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 로 교마자와대학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생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 운주사(雲祥寺)·주지이자 동국사를 지 원하는 모임회장이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가 있다.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

단일화 또 결렬

조정위 2차 회의서

교수회 추천 미산 스님과 문묘회 추천 원종 스님으로 압축된 중앙승가대 제6 대 총장 후보 단일화 시도가 다시 결렬 됐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가 구성했던 조정위원회는 2월 28일 교내 교무회의 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단일화를 조율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산 스님과 원종 스 님의 입장을 듣는 등 단일화에 대한 논 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승가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로 결의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예산 3억여 원 확정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2월 2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인장에서 제1차 교구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직할교구 총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해 3억8천9백24만6천 원으로 확정 했다. 신종일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⑦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1204-8213.4

모든이에게 주어진 행복 초대장



누구나 행복해지기 원한다. 원하기에 노력을 한다. 불 철주야로 애쓰는 사람도 많다. 누구에게든 행복할 권리 가 있다. 권리가 있기에 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제 노력으로 벱차다 싶으면 他力을 빌어서라도 손에 넣 기를 바란다. 그러나 왠지 행복은 험사리 손에 잡히질 않 는다. 아직은 때론 불소식처럼 만발지에서 가물거리는 경 우가 더 많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가 하면 반대 로 원치도 않는 불행과, 고통과 불행이 불쑥 덮쳐들기도 한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통탄해마지 않을 경우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꼭 잡았다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 떠나가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따드는 모습 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이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 하고 늘 건강하고, 늘 즐겁고 늘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늘 풍족 하고 늘 사람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릴 길은 없는 것일 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 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있다! 행복을 원하는 모 든 사람에게 행복의 초대장은 쥐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진·치 삼 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원하면서도 서로를 죽이고 미워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반사처 럼 그것을 파괴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 은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치고 빼앗는

일을 자행한다. 제 몫만 챙기려는 삼독심 때문이다.

행복·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이 쉽게 잡힐 것 같지만 행 복 대신에 불행이 밤 도둑처럼 소리 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불행해질 것 같 지만 행복이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 안는다. "내가 소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생각은 오직 관념의 허 상일 뿐이다. 고토 나, 내것을 놓는 삶 속에 행복이 있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행복은 놓아 버림에서, 불행 은 집착에서 씩이 튼다는 말씀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반기 전에 먼저 주어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 해 만들지 말고 나뉘 주기 위해 만들라. 행복해지고 싶거 는 나를 위해 맘을 흘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맘을 흘려 라. 행복이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의식이 사라지는 만큼 찾아오는 것이다. 완전한 방하작은 완전 한 행복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에서나 그것은 진리이다.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고 애인 사이에서도 그렇다. 나를 위해 수천 배 절을 하기보다 남 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행복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법보시 국악기 전문 양지국악사 0213673-3442 서울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